

# 다도해 섬지역 '녹색 숲' 되살린다

방목가축으로 인해 훼손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섬지역 생태계가 복원된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사무소(소장 김상식)와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각각 20여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달초부터 도서지역의 애생·동·식물 서식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서 녹색 숲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양 사무소는 주민들과 함께 도서지역의 방목가축 없애기를 비롯해 도서지역 훼손지 및 상록 활엽수림 복원, 군부대 초소 등 경관 저해시설 철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보길도 부속도서인 치도에서 방목 중인 염소 7마리를 그물로 포획했다.

## 염소 등 방목가축 포획하고 활엽수림 심기

### 군부대 초소 등 철거... 생태계 복원 추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역시 최근 흙산도 옥섬에 위치한 1970년대에 세워진 폐정자를 철거했다.

유·민인도에 방목된 염소는 섬에서 자라는 다양한 종의 나뭇잎은 물론 뿌리, 줄기까지 먹이를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방목염소와 토끼 등 90마리를 포획한데 이어 올해도 관내 10개 도서에 2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색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도서 녹색 숲 복원사업은 도

로 파악하고 포획하기 좋은 가을~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방목 염소 303마리를 포획했으나 여전히 1천8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훼손지 복원사업은 사전에 자생하는 식생을 현지조사한 후 이에 맞춰 후박나무,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녹색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도서 녹색 숲 복원사업은 도

서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방목 가축에 의해 훼손된 섬지역 숲은 도서환경에 적합한 상록활엽수를 심는 등 지속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흥도에서 여수시 불산면에 이르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지난 1981년 12월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보길·정산·소안·여수·고흥·거문도, 서부사무소는 흙산도·홍도·비금·도초·조도에 각각 분소를 두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신안=조완남기자 wncnho@



## 국토순례 '한걸음 한걸음'

국토순례 출정식을 마친 대학생들이 지난 26일 희망의 시작점인 해남 송지면 갈두리 '땅끝'을 출발해 송하호수욕장 인근을 힘차게 걷고 있다. <해남군 제공>

## 녹동~거문도 '평화훼리 9호' 취항

고흥 녹동~거문도간 항로에 차량 운송 겸용 여객선 '평화훼리 9호'(220t)가 27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주)평화해운이 운영하는 '평화훼리 9호'는 승객 165명과 차량 34대(승용차 기준)를 수송할 수 있다.

최대속력은 16노트로 기존 여객선(평화훼리 5호)보다 30분이 단축된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녹동에서는 오전 7시, 거문도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며, 요금은 승용차 기준 편도 7만3천700원, 여객은 석

인 2만2천500원이다.

이번 신규 여객선 취항에 따라 거문도에서 생산되는 갈치 등 농수산물과 생필품의 반입·반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해운 이우암 대표는 "차량과 화물뿐 아니라 승객의 만족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빠른 속도에 초점을 맞춰 여객선을 건조했다"며 "다른 배속선에서는 느끼지 못하였던 바다의 풍광을 선상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증기자 gjju@



## 목포, 해양레저의 꽃 피운다

### 요트 마리나 준공... 50피트급 32척 정박

목포항에 50피트(ft)급 요트 32척이 정박할 수 있는 요트 마리나 시설(사진)이 준공됐다.

목포시는 '해양레저의 꽃'으로 불리는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삼학도 목포 내항에 4년간 70억원을 투입해 50피트급 요트 32척이 댐수 있는 부유체식 요트 계류장과 클럽 하우스, 요트 인양기, 레포츠 교육장, 육상 척지장, 주차장 등을 갖춘 마리나 시설 공사를 끝내고 28일 준공식을 갖는다.

시는 이곳에 1천억원을 더 투입해 요트 전용항으로 개발하고자 북항에 어선 전용부두를 만들어 내항 어선을 오는 2011년까지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10억 5천만원을 들

여 내년 취항을 목표로 51피트급 쌍동선 세일링 보트 건조에 들어갔다.

시는 요트 마리나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요트 조종면허 취득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요트스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도 유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완공된 요트 마리나는 항후 1천억원 규모의 삼학도 요트 전용항 개발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목포 마리나는 낙후된 목포권을 고부가가치 첨단 요트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순천 성장동력 자전거산업 '탄력'

보세구역 지정시기는 자전거 관련 특화 기술을 보유한 알레나스 등 14개 기업이 입주한 마그네슘 단지 내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 등 모든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으로 했다.

순천시는 또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해 마그네슘 단지를 '고강도 마그네슘을 이용한 경량 자전거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신청, 지난 21일 지역 전략진흥사업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시·업체 마그네슘 단지 보세구역 지정 추진

순천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자전거 산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27일 순천시 해동면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노관군 순천시장, 이동경 여수세관장, 임경대 알레나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그네슘 단지 보세구역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순천시가 성장산업으로 집

중 육성하고 있는 자전거 산업체들이 입주중인 순천 마그네슘 단지(해동산단)를 종합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됐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단계별로 과제행정상의 지원을 받게 돼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 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완도 수산물 흥보에

### 연예인 축구단 뛴다

연예인 축구단이 완도 수산물을 널리 알린다.

완도군은 다음달 2일 연예인 축구단 'FC 슈퍼페스 시스템'을 초청, 전복 사탕탕과 광어 사탕탕으로 구성된 완도 동호인 팀과 종합운동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갖는다.

연예인 축구단은 가수 탁재훈이 단장으로 완도경기에는 탁재훈, 개그맨 이휘재, 이수근, 텔런트 김승현, 임형준, 이재훈, 멀티안계범 등 20명의 유명 연예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완도의 특산물인 전복, 광어 소비 촉진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관광지 흥보를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은 연예인 팀에게 완도의 특산물인 광어, 전복 명예면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장수하늘소' 어디서 보나요

### 함평생태공원서 '특별전시회'

여름방학을 맞아 함평에서 다양한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함평군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함평자연생태공원 표본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장수하늘소 표본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회에는 천연기념물 제218호인 장수하늘소와 다양한 국내외 하늘소 표본 500종 2천500여 종이 전시돼 관람객에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으로 어린 이에게도 매우 친근한 곤충이다.

며 '자연생태공원에는 나비·곤충 애벌레 생태학교도 함께 운영되는 등 최고의 여름 체험학습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시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 강 유역에 서식하는 '티타누스기 간테우스' 하늘소 등도 선보인다.

또 북한 출신 곤충학자 이승모 박사는 지난 1950년에 월남하면서 가져온 후 함평군에 기증된 표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장수하늘소는 우리나라 곤충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으로 어린 이에게도 매우 친근한 곤충이다"며 "자연생태공원에는 나비·곤충 애벌레 생태학교도 함께 운영되는 등 최고의 여름 체험학습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통일운동의 중심적 역할 수행 최선"

### 이상현 민주평통자문회 목포시회장



"지역민들과 함께 통일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선임된 이상현(59) 제14기 민주평통통일 자문회 목포시협의회 회장은 "원칙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에도 앞장 서 존경받는 민주평통을 실현하

겠다"고 다짐했다.

목포 출신인 이상현 회장은 목포 초·중·고 운동연합회 회장, 전문건설협회 전남본부 회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전남도 목포시회장을 맡았다.

특히 2008년 10월 10일에는

제14기 민주평통 목포시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제1